

삶과 죽음 그리고 정치

최 순 영*

죽음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숙명이자, 인간의 가장 깊은 고뇌이다. 그래서 죽음은 항상 예술, 철학, 종교의 주요 테마였다. 죽음을 해석하고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죽음의 순간에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맞개념인 삶에도 뚜렷한 차이를 남긴다.

너무 늦게서야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리고 더러는 너무 일찍 죽는다. '제때에 죽도록 하라!'는 가르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낯설게 들린다. 제때에(zur rechten Zeit) 죽도록 하라. 차라투스트라니 이렇게 가르치노라. 그러나 결코 제때에 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제때에 죽을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런 자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나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바이다.¹⁾

사람은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평생을 통해 배워야 한다. 또한 사람은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지를 배우기 위해서도 평생을 보낸다.(세네카)²⁾

* 서울대학교

- 1) 프리드리히 니체, 정동호 옮김,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전집 13』(서울: 책세상, 2005), 120.
- 2) 제자인 네로 황제에 의한 세네카의 비극적이지만 장엄한 죽음에 대해서는 로제 폴 드르와, 장 필립 드 토낙, 임왕준 옮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삶과 죽음의 명장면』(서울: 샘터, 2002), 200-203. 참조.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생존이라는 단어는 언론의 주요 용어로 등장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생존이 화두가 된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과 해고의 위협이 판치는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차분히 다른 시대의 삶과 죽음을 사색할 필요가 있다.

생존은 죽음에 대한 강력한 반항이다. 실제로 죽음에 직면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강력하게 죽음에 저항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머리를 스치는 두 명의 사상가가 있다. 토마스 홉스와 맹자이다. 마키아벨리와 더불어 홉스를 근대 정치학의 시조로 칭한다. 그는 베이컨과 더불어 스콜라철학의 허구성을 비판하였다. 홉스는 과학적, 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과 정치에 대한 세속적 해석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로서 홉스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를 자기 보존이라 했으며, 이 자기보존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치사회의 구성과 그 정당성의 기초를 설명하였다.

필자는 생존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홉스를 근대정치학의 시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존은 그 이전의 정치 사상가들에게 중요한 가치이기는 해도 독립적인 가치는 아니었다. 즉 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생존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에 복속되는 종속적 가치였다. 공자, 맹자를 비롯한 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 현대에 들어서는 현대 대중사회의 인간을 천민, 최후의 인간으로 비판한 니체가 그러하다.

홉스 이래로 정치와 인생에 대한 세속적 이해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하늘과 운명에 맡기기보다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행위를 통한 생존의 확보와 죽음의 제거를 목표로 하여왔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인류는 어느 시대보다 장수하며 어느 시대보다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 - 홉스의 표현으로 쾌적한 삶³⁾ -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죽음을 넘어선 가치들에 대한 도전을 압도하기

3) 각주 4 참조.

에 이르렀다. 현대인은 가장 안전한 사회 속에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것도 60-70대의 삶에 대한 걱정을 하며.

생사에 대한 주관이 하늘, 천명, 하느님이 아닌 세속적 행위의 결과로 이해되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더욱 안전과 생존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소여성으로서 생명이 아닌 조작가능성으로서의 생명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이에 반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중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소여태로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초월적 존재의 일로 여겼다. 인명재천(人命在天)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과거의 사람들보다 현대인이 죽음에 덜 초연함은 소여태로서의 생명에서 조작가능성으로서 생명으로의 전환에 기인한다. 그리고 현대의 도시 문명은 죽음의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부터 철저히 괴리시킴으로써 삶이 죽음의 반대물이 아니라 삶 자체가 죽음과의 공존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차단한다. 도시와 격리된 장례식장, 시신의 병원 안치와 빈소와 시신의 분리가 그 예이다. 그리고 생명체의 삶과 죽음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현대도시에는 절대 부족하다. 반대로 인도의 갠지스 강의 경우 삶과 죽음은 같은 공간에 병존한다. 한쪽에서는 시신을 화장하고 옆에서는 태어난 아기를 강에 씻는 종교예식을 거행한다.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삶과 대립적으로 인식한다. 삶과 죽음은 조작가능성으로 이해되고, 정책을 통한 삶의 보장과 죽음의 배제가 정치의 주요 과업이 되었다. 인간은 수명연장을 얻은 만큼 불안을 얻은 것이다. 자유가 늘어난 만큼 불안도 늘어났다.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근대적 인식의 출발을 필자는 흙스의 사상 속에서 본다.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멘웰스 속에서
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보존과 그로 인한 만
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또한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열매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
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4)

* 유학의 天命사상과 삶과 죽음. 자기보존을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 목숨을 천명에 맡기는 정치적 모험

천명을 일컬어 성性이라 한다(天命之謂性).⁵⁾

하늘이 내게 덕을 주었는데 환퇴가 내게 어찌하랴?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⁶⁾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義를 취하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원하는 바가 삶보다 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삶을 구차히 얻으려고 하지 않으며,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싫어하는 바가 죽음보다 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환난을 피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원하는 바가 삶보다 심한 것이 있으며 싫어하는 바가 죽음보다 심한 것이 있으니, 다만 賢者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건마는 賢者는 능히 이것을 잃지 않을 뿐이다.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혀를 차고 꾸짖으면서 주면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으며 발로 차서 주면 걸인도 좋게 여기지 않는다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兼得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 有甚於生者 故 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 有甚於死者 故 患有所不避...是故 所欲 有甚於生者 所惡 有甚於死者 非獨賢者有是心也 人皆有之 賢者 能勿喪耳 一簞食 一豆羹 得之則生 弗得則死 噲爾而與之 行道之人 弗受 蹴爾而與之 乞人 不屑也).⁷⁾

그리고 정몽주의 단심가와 성삼문의 수형시를 통해서도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를 볼 수 있다.

4) 토마스 홉스,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17장 ‘코먼웰스의 원인, 생성 및 정의에 대하여’』 (서울: 나남, 2008), 227, 231-232.

5) 『中庸』, 1편 1 장 天 과 人

6) 『論語』, 述而 22

7) 『孟子』, 告子 上 10

절필(絶筆)

임금이 주신 녹을 먹고 임금이 주신 옷을 입었네(食君之食衣君衣)

평소의 뜻 일생에 어김이 없고자 했네(素志平生莫有違)

한번 죽음에 진실로 충의가 있음을 알겠거니(一死固知忠義在)

현릉의 송백이 꿈에서도 그림구나(顯陵松柏夢依依)⁸⁾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성경에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

죽 의당 자유인들이어야만 하고, 죽음보다는 노예의 신세를 더 두려워해야 할 자들로서는 말일세. …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동료이기도 한 훌륭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는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네.⁹⁾

어떤 행위는 우리가 강요받는다 해도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무서운 고난에도 피하지 말고 죽음을 택해야 할 것도 있다.¹⁰⁾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¹¹⁾

최고선이 아닌 생존이 최고의 목적인 공동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에는 노예들의 공동체로 보였을 것이다.

실제로 헤르메스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라. 군인들은 앞장서서 도망쳤다. 그러나 징집된 시민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크로폴리스를 지켰다. 시민군들에게 있어서 도망치는 것은 추악한 일이고, 그렇게까지 해서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

8) 『譯註 梅竹軒 文集: 성삼문과 그 시대』, 최영성 역주 (서울: 심산문화, 2002), 118. 현릉은 문종의 무덤을 가리킨다.

9) 플라톤, 박종현 역주, 『국가』 387b, d (서울: 서광사, 2006), 186-187. 여기서 플라톤은 죽음의 공포를 부추기는 시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10) 아리스토텔레스, 손명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서울: 동서문화사, 2007), 52.

11) 마르코 복음 8장 34-35절

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²⁾

홉스가 주장한 정체의 성립과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는 판이하다. 홉스에게 정체는 자기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체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자연체, 가장 으뜸가는 좋은 목적을 추구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폴리스(Polis)이다.¹³⁾

철학에서의 근대적 세속화의 과정은 천과 인에서 천을 인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이를 환원적 자연주의(reductive naturalism)라 칭할 수 있다.¹⁴⁾ 그리하여 인간의 본질로서 관조 또는 기도를 대체한 노동하는 인간, 생철학 같은 것이 근대적 현상으로 등장한다.¹⁵⁾

머슬로우의 『존재의 심리학』의 5단계의 욕구체계에서 보면 홉스의 정체는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안전,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 이상의 고차적 욕구,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족, 우정)’, ‘자존감에 대한 욕구(자기 존경, 인식)’,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능성의 개발)’는 포기된다.¹⁶⁾ 이에 비해 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체는 보다 높은 단계의 욕구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만인의 聖賢化와 최고선의 실현) 그러므로 생존의 욕구는 최소적인 것이다. 고대인의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동을 불가피한 생존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의 중시와 생존의 중시는 비례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노동과 생존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죽음은 가치절하 되고 삶에서 분리된다.

홉스가 보다 높은 단계의 실현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영역으로

1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70.

13) 아리스토텔레스, 손명현 옮김, 『정치학』(서울: 동서문화사, 2007), 259, 262.

14) 파울 틸리히, 송기득 옮김, 『19-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262.

15) 한나 아렌트, 이진우, 태정호 옮김, “6장 ‘활동적 삶과 근대,’” 『인간의 조건』(서울: 한길사, 2003), 313-389 참조.

16) 에이브러햄 H 머슬로우, 이혜성 옮김 『존재의 심리학』(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324-325.

취급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흠스를 자유주의 전통에서 이해한다면 이 부분은 개인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그러나 현대의 소외된 개인들의 보다 높은 욕구로의 상승의 포기과 실패에 따른 군중사회의 탄생이 문제가 된다. 안전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생존이 최고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해지면 생존욕구의 가치는 비중이 줄어든다.

공자의 일일우일신(日新又日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선, 예수의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에 대한 경고, 사도 바오로의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는 부단한 가능성의 개발로서의 인간을 피력한 것이다. 18) 현대인은 안락과 쾌적함을 목표로 함으로써 보다 고상한 가치로의 상승을 포기한 상태에 빠져있다.

역사에 영원불멸의 명성을 남기게 될 고상한 과업들을 치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만일 이런 일을 사회가 지향할 주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민주정치는 피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민주정치는 분명하게 그 목표로 당신을 인도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적, 도덕적 활동을 안락한 사물의 생산과 전반적 복리의 증진으로 돌리는 것을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천재성보다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유익하다면, 영웅의 윤리가 아니라 평화의 습관을 증진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라면, 또한 범피보다는 폐단 쪽을 택하고 범법행위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 경우 고귀한 행동이 줄어들어도 만족

-
- 17) 필자는 흠스를 자유주의자도 반자유주의자도 아닌 절대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이행기의 사상가로 본다. 흠스는 왕당파와 의회파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했다. 전자는 왕권의 신성을 부정하는 흠스의 계약론과 개인주의를, 후자는 절대권력에게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는 흠스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조지 셰이빈·토마스 솔슨, 성유보·차남희 옮김 『정치사상사 2』 (서울: 한길사, 2005), 692-694. 참조.
- 1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복음 9장 62절.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다.” ‘창세기’ 19장 26절. 사도 바오로의 인용구절은 “코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5장 31절. 허무주의, 데카당스로서 기독교라는 니체의 비판과는 달리 신구약 성경도 끊임없는 자기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니체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 성경을 오독하였다.

한다면, 찬란한 사회에 살기보다는 당신 주변이 번영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주요 목표가 국가 전체에 가능한 최대한 권력과 영광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에게 최대의 안락을 확보해주고 가능한 한 가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라면, 위에 말한 것들이 당신의 바라는 바라면 사람들의 처지를 평등하게 만들고 민주제도를 수립해야 한다.¹⁹⁾

천민, 최후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통한 니체의 현대문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다. 니체는 토크빌이 말하는 전자의 귀족적 가치를 선호하였다. 그래서 니체는 민주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토크빌은 조건의 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화의 경향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신의 섭리’ 내지는 역사적 대세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니체와 견해를 달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갔다면, 그리고 인간의 능력보다 우세한 어떤 힘이 우리들이 바라는 바와는 관계없이 그들 두 가지 정부 형태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이미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들에게 할당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의 좋고 나쁜 경향을 모두 밝혀내서 좋은 경향을 북돋우고 나쁜 경향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한다.²⁰⁾

니체와 토크빌의 차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니체는 철학의 반시대성을 강조하면서 역사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토크빌은 역사적 대세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인다. 이점에서 토크빌은 역사주의적이다. 즉 니체는 반헤겔적이며, 토크빌은 헤겔적이다.

니체의 위버멘쉬는 자기극복을 실현하여 삶의 불합리와 고통을 긍정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상승하는 존재이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위버멘쉬 사이에 줄타기 하는 존재이며, 인간에게는 동물로 퇴행하든지 아니면 위

19) 알렉시스 드 토크빌, 임효선·박지동 옮김 『미국의 민주주의 I』(서울: 한길사, 2008), 328-329.

20)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I』, 329.

버멘쉬로 상승하는 길만 있을 뿐이다. 정지는 고인 물이 썩듯 몰락을 뜻한다. 현대인은 위버멘쉬와 동물 사이에 걸쳐진 줄에서 생존과 안락을 위하여 줄을 붙잡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앉아 있는 이상 언젠가는 추락할 것이다.

사람은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건너가는 과정, 뒤돌아보는 것,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위험하며 멈춰 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사람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이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의 과정이요 몰락이라는 것이다.²¹⁾

자기보존과 쾌적한 삶을 정체의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홉스의 정치관을 그 이전의 다른 정치관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너희들에게 위버멘쉬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을 뛰어넘어 그들 이상의 것을 창조해왔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이 거대한 밑물을 맞이하여 썰물이 되기를 원하며 자신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짐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사람에게 원숭이는 무엇인가? 일종의 웃음거리 아니면 일종의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이 아닌가. 위버멘쉬에게는 사람이 그렇다. 일종의 웃음거리 아니면 일종의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 일 뿐이다. 너희들은 벌레에서 사람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도 많은 점에서 벌레다. 너희들은 한 때 원숭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그 어떤 원숭이보다도 더 철저한 원숭이다. ²²⁾

우물쭈물 살다 이럴 줄 알았어. (버나드쇼의 묘비명)

버나드 쇼도 제때에 살고, 제때에 죽지 못함을 아쉬워했던 것은 아닐까?

21)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전집 13』, 21.

22) 같은 책, 16-17.